아리에타 완봉승…해적단의 가을 The End

시카고 컵스 NLDS 진출

11K 4안타…6회 1사만루 위기 병살로 막아
10일부터 세인트루이스와 5전3승제 맞대결

역시 야구는 투수놀음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을 노리고 있는 에이스 제이크 아리에타의 9이닝 11탈삼진 무실점 완봉 역투에 힘입은 시카고 컵스가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에 올랐다.

컵스는 8일(한국시간) PNC 파크에서 열린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피츠버그를 4-0으로 물리쳤다. 컵스는 같은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에 속한 세인트루이스와 10일부터 5전 3승제의 NLDS를 치른다.

정규시즌 성적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과시했다. 22승(6패)으로 다승1위, 1.77로 방어율 2위에 오른 아리에타는 피츠버그를 상대로도 3승1패에 방어율 0.75를 기록했다. 이날도 피츠버그는 고작 4안타에 그치며 아리에타 공략에 실패했다.

승부는 일찌감치 갈렸다. 컵스 테이블세터 덱스터 파울러와 카일 슈워버가 피츠버그 선발 게릿 콜을 무너트렸다. 1회초 중전안타를 친 파울러가 도루에 성공하자 슈워버는 콜의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
(8일 · PNC파크)

팀	1	2	3	4	5	6	7	8	9	R	H	E
시카고 컵스	1	0	2	0	1	0	0	0	0	4	7	1
피츠버그	0	0	0	0	0	0	0	0	0	0	4	1

승:제이크 아리에타 패:게릿 콜

바깥쪽 공을 밀어 쳐 좌전적시타로 연결했다. 3회초에는 1사 후 파울러가 우전안타를 치자, 슈워버가 우측담장을 넘기는 430피트(131m)짜리 대형홈런을 때려 PNC 파크를 침묵에 빠트렸다. 5회초 1사 후 3번째 타석에 선 파울러는 역시 우측담장을 넘기는 솔로홈런을 뽑아내 승부의 추를 기울게 만들었다.

아리에타의 구위에 눌리던 피츠버그는 6회말 1사 만루 기회를 잡았다. 트래비스 스나이더의 중전안타, 조시 해리슨의 사구에 이어 앤드루 매커친이 유격수 실책으로 1루를 밟아 만루를 만들었다. 그러나 스탈링 마르테가 유격수쪽 병살타를 때리고 말았다.

피츠버그 2번째 투수 토니 왓슨은 7회초 2사 후 주자 없는 상황에서 9번타자인 아리에타의 허리를 직구로 강타해 벤치클리어링을 유발했다. 강정호의 부상으로 묘한 긴장관계가 형성된 데다 이날 아리에타가 2개의 사구를 내면서 양 팀의 감정이 이런 식으로 표출됐다.

손건영 스포츠동아 미국 통신원

무릎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피츠버그 강정호(아래)가 8일(한국시간) PNC파크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의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앞서 휠체어를 탄 채로 그라운드에 나타나 홈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피츠버그(미 펜실베이니아 주) | AP뉴시스

통신원 수첩

무기력한 피츠버그 타선 테이블세터 싸움서 희비

루키지만 중심타자로 맹활약을 펼쳤던 강정호가 부상으로 빠진 피츠버그 타선은 무기력했다. 지난해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홈 어드밴티지를 살리지 못하고 샌프란시스코 매디슨 범가너에게 0-8로 완패를 당했던 충격이 1년 만에 그대로 재현됐다. 이번에는 시카고 컵스의 희망 제이크 아리에타에게 농락당하며 0-4로 무너졌다. 올 시즌 98승을 거둬 메이저리그 전체 승률 2위에 올랐지만, 피츠버그의 가을야구는 또 다시 1경기로 마감됐다.

8일(한국시간) PNC 파크에서 벌어진 컵스-피츠버그의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테이블세터 싸움에서 희비가 갈렸다. 덱스터 파울러~카일 슈워버로 이어진 컵스 1·2번타자는 7타수 5안타 2홈런 4타점 4득점을 올리며 피츠버그 에이스 게릿 콜을 완벽하게 공략했다. 반면 피츠버그 테이블세터 그레고리 폴랑코와 조시 해리슨은 7타수 무안타에 삼진을 3개나 당했다. 간판타자 앤드루 매커친에게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려주지 못했다. 이날 피츠버그가 뽑은 안타는 고작 4개. 1년 전 범가너를 상대로 기록한 안타 수와 정확하게 일치했다.

컵스는 디비전시리즈에서 지구 라이벌 세인트루이스와 대결한다. 정규시즌에선 컵스가 8승11패로 열세를 보였지만, 세인트루이스 포수 야디에르 몰리나가 손가락 부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아 승부를 예측하기 힘들다.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괴물투수 아리에타를 1번만 상대할 공산이 높다는 것이다. 두 팀의 1·2차전은 10일과 11일 세인트루이스의 홈경기로 펼쳐진다. 일정상 아리에타가 선발로 나설 수 있는 경기는 13일 리글리필드에서 열릴 3차전이다. 아리에타가 지난해 포스트시즌을 강타했던 '범가너 신드롬'을 재현하기 위해선 팀 동료들의 분전이 절실하다. '염소의 저주'를 깰 절호의 기회를 잡은 컵스의 가을야구 최종 결과가 궁금하다.

손건영 스포츠동아 미국 통신원

8일(한국시간) 피츠버그와의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4-0 완봉승을 거둔 시카고 컵스 투수 제이크 아리에타(위)를 1루수 앤서니 리조가 들어올리며 환호하고 있다. 컵스는 디비전시리즈에 올라 올 시즌 메이저리그 전체 승률 1위인 세인트루이스와 맞붙는다. 피츠버그(미 펜실베이니아 주) | AP뉴시스

종양제거 수술 서동철 감독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

KB스타즈, 시즌 초 박재현 수석코치가 지휘

프로스포츠에서 감독직은 늘 스트레스를 안고 사는 자리다. 팀 성적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 성적이 좋지 않은 팀 감독은 물론이고 우승팀 감독도 성적 유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가 워낙 크다 보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최근 여자프로농구 KB스타즈 서동철(47·사진) 감독의 건강이 악화돼 구단과 지인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 2013년 KB스타즈 지휘봉을 잡은 서 감독은 경기 결과에 따른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지도자 중 한명이었다. 경기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았다.

서 감독은 7월 외국인선수 드래프트 직후 심한 복통을 느껴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해 담낭(쓸개) 제거 수술을 받았다. 이후 온전치 않은 몸으로 선수들을 이끌고 8월 24일 전지훈련을 위해 일본으로 떠났지만 건강이 악화돼 조기 귀국했다. KB스타즈 관계자는 "일본에서 황달 증세가 나타나는 등 감독님의 몸이 정말 좋지 않았다. 감독님만 조기 귀국을 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십이지장 쪽에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초기에 종양을 발견했다. 감독님은 수술을 받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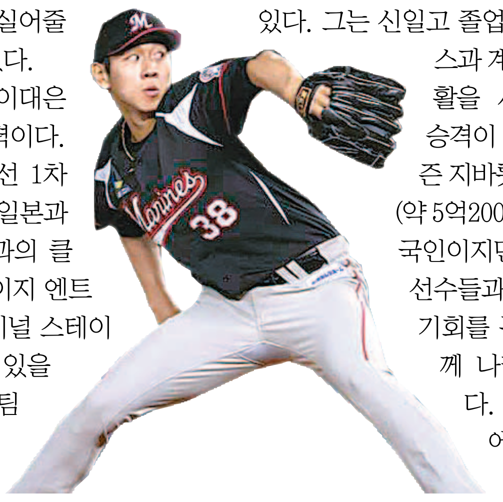
여자프로농구 2015~2016시즌은 31일 개막한다. KB스타즈는 시즌 초반 서 감독 없이 경기를 치른다. 이 관계자는 "감독님의 건강이 호전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시즌 초반에는 박재현 수석코치가 팀을 맡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변에서 워낙 걱정하는 연락이 많아서 감독님이 휴대전화를 끈 채 휴식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감독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빨리 회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복귀를 약속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국가대표 이대은의 또다른 가치 '정보력'

'프리미어12' 일본전 전력분석 역할 기대

지바롯데 이대은(26·사진)이 '2015 프리미어12'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해외파로는 소프트뱅크 이대호(33)와 함께 '유이하게' 대표팀에 뽑혔다. 책임감이 무겁다. 그는 KBO리그에서 실종된 우완 선발요원 대안이다. KIA 양현종마저 부상으로 빠진 대표팀 마운드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쟁력은 충분하다. 이대은의 가장 큰 강점은 정보력이다. 한국은 프리미어 12 예선 1차전부터 삿포로돔에서 일본과 격돌한다. 현재 니혼햄과의 클라이맥스 시리즈 1스테이지 엔트리에는 빠져있지만, 파이널 스테이지에는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대표팀 중 일본선수들의 컨디션과 스타일을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으로선 핵심전력분석요원을 보유하게 됐다.

우완 선발의 빈 자리도 메울 수 있게 됐다. 현재 대표팀에서 우완 정통파 선발은 윤성환(34·삼성)밖에 없다. 윤성환이 기교파라면, 이대은은 시속 150km의 빠른 공을 갖춘 강속구 투수다. 힘 있는 공을 던지는 선발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이대은은 대표팀 예비 엔트리에 이름을 올른 뒤 태극마크에 대한 간절함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신일고 졸업 후 2007년 시카고 컵스과 계약해 미국에서 프로생활을 시작했다. 메이저리그 승격이 이뤄지지 않자, 2015시즌 지바롯데와 1년간 5400만엔(약 5억2000만원)에 계약했다. 한국인이지만 프로무대에선 한국 선수들과 뛴 적이 없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선수들과 함께 나라를 대표해 뛰게 됐다. 절실함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kt 유일 태극마크 조무근 '성장의 기회'

신생팀이 배출한 순수 신인 국가대표인 kt 조무근(24·사진)에게 태극마크는 가문의 영광이다. 1군 데뷔시즌을 마친 팀에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성과다.

프로야구 1군 엔트리는 시즌 말 확장되기 전까지 27명이다(kt는 28명). 단순 숫자로 계산하면 리그 전체 1군 선수만 271명이다. 1.5군으로 불리는 전력까지 계산하면 외국인 선수를 빼도 300여명이 KBO리그에 있다. 그 중 프리미어12 국가대표에 선발된 인원은 26명(해외파 2명 제외)에 불과한데, 순수 신인은 조무근뿐이다.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신인드래프트 2차 6라운드 전체 54순위로 kt 유니폼을 입은 조무근은 입단 당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신생팀 특별 우선지명으로 뽑은 홍성무와 주권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그러나 조범현 kt 감독은 올 시즌 초반 조무근에 대해 "하드웨어(키 198cm)가 무척 좋은 투수다. 아직 구속이 나오지 않는데, 체계적인 훈련을 마치면 충분히 강속구를 던질 수 있다. 스플리터처럼 종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더를 갖고 있더라. 빠른 공을 더하면 큰 역할을 하는 투수로 성장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대학시절 시속 130km대에 머물던 조무근의 직구 스피드는 체력훈련에 열중하고 투구폼을 매끄럽게 가다듬으면서 올 시즌 경기를 치를수록 빨라졌다. 시즌 말에는 매 경기 시속 148km를 찍었다. 시즌 성적은 43경기에서 71.2이닝 8승5패4세이브2홀드. 특히 방어율이 1.88로 최정상급이다. 그 덕분에 투수 중 유일하게 신인왕 후보로 뽑혔다.

프리미어 12 대표팀 예비 엔트리에 뽑혔을 때 조무근은 "꼭 최종 엔트리에 뽑혀 대표팀에 가고 싶다"고 바랐다. 조 감독도 "뽑히면 얼마나 좋겠냐. 신인이 국가대표에 뽑힌다는 것 자체가 팀도 영광이며, 선수 스스로에게는 큰 무대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굉장한 기회다"고 말했다. 7일 대표팀 최종 선발을 통보받은 조무근은 "많이 가르쳐주신 감독님, 코치님에게 감사드리고 뽑아주신 김인식 감독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말 큰 영광이다"고 기뻐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정부패 척결 쇄신책 발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강력한 자체 쇄신책을 발표하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이창섭 이사장은 "최근 발생한 직원 비리사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전 임직원은 철저한 자기반성과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환골탈태를 위한 경영쇄신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고, 50만원을 초과하는 비위행위자에 대해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파면·해임키로 했다. 또 금품수수·횡령의 경우 최대 5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쇄신책을 적용키로 했다.

심스 25점·14R…kt, KCC 꺾고 3연패 탈출

kt가 8일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2015~2016 KCC 프로농구' KCC와의 홈경기에서 89-59의 대승을 거뒀다. kt(4승6패)는 3연패에서 탈출한 반면 KCC(6승4패)는 5연승 행진을 마감했다. kt 센터 코트니 심스는 25점·14리바운드, 이재도는 22점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국가대표팀 일정을 마치고 복귀한 kt 간판슈터 조성민은 5점에 그쳤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